

1991 5

가정예배 안내서

#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충현올림픽」

##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 여호수아 서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역사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라 말할 수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딤후6:12) 본서는 매우 유익한 책이다. 왜냐하면 본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 두신 모든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예증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영적 군사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신약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호수아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다. 여호수아가 지상의 원수들을 정복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것같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안식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유업을 지정해 주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엡1:3이하). 본서는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지침서가 될 것이며 매우 유익한 책이다.

## 5월의 기도제목

1. 이종운 위임목사님과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2.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의 사명과 헌신
3. 진행중인 목회자 세미나
4. 사랑의 집, 선교원 건립
5. 교회 부흥
6. 교회학교의 질적 양적 성장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13: 1)

여리고 함락 이후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복되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입니다(참조, 신1:11).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각 지파의 분깃을 따라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각 지파의 소유가 되고 누리게 되는 과정에는 댓가를 지불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 곧 영적인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약속된 기업인 가나안을 소유하고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업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자기 절제와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 가나안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영역 곧 가정과 직장, 교회,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 모든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축복의 기업을 생취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땅, 축복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위임 이종윤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올해의 모든 목회를 축복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13 : 33)

본장에는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분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준 기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이 지파는 요단 동편의 남부 지역을 분깃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갓 자손 역시 요단 동편의 중부지역 곧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윗 지역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의 북부 지역으로, 그곳은 '옥'이 다스리던 바산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단,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케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신10:8, 9). 이처럼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므로 그들은 세상의 기쁨보다는 신령한 기쁨과 만족을 목적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고 그들의 삶은 주님을 봉사하는 일에 어떠한 장애도 없이 철저한 경배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도 요단 동편에서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십일조를 통해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움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복음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며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 보다 영적인 삶을 위해 물질을 상대화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원로 김창인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케 불드소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14: 2)

본장에는 요단 서편 땅을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 뽑아' 그들의 땅을 나누어 소유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 모세에 의해서 분배 되었으나 가나안 땅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야 했는데 제비 뽑는 일에 참가할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은 것은 그 땅의 분배가 사람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들이 소유하는 땅이 영구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땅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제비를 뽑는 일은 땅 분배를 놓고 서로 좋은 곳을 차지하려는 분쟁을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사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후에 지역을 분할한 것은 각 지파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할 땅의 지역을 정하고, 지파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역 분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순응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처사입니다.

※ 성경 여러 곳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제비를 뽑는 행위 자체가 미신적인 행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에 자신을 맡기고, 받은 바 은혜를 선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관리와 공평한 처사를 통해 자신과 이웃의 유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지혜로운 신자가 됩니다.

기도 모든 선택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충만케 하소서.

## 4 (토)갈렙의 믿음과 용기

찬송382 성경, 수14 : 6-15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14 : 12)

갈렙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민13:30). 본문은 갈렙의 믿음이 지닌 특징을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갈렙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가까이 따르며 순종한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한 것을 뜻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거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약속하신 헤브론을 얻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85세의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그의 힘을 항상 강건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갈렙은 일생동안 분투하고 전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몸과 마음을 강건케한 것입니다. 이런 갈렙은 의욕이 넘쳐서 가장 강력한 적이 진치고 있는 헤브론을 얻고자 용기있게 나섰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역시 갈렙의 청원이 결코 만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갈렙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으며, 갈렙이 청원한 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복되고 아름다운 땅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 오늘날 우리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갈렙이 얻은 헤브론을 우리도 기업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의 사람인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용기를 갖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갈렙의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장로님들에게 힘과 명철을 더하시며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입니다」(9 : 48)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의 여러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창 키가 커갈 때 친구들이랑 서로 키재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키를 더 크게 보이려고 발돋음을 하며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과 1~2센티의 차이를 두고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도토리들의 논쟁이 오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위의 고하를 가지고 누가 크냐 하며 변론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예수님은 마음으로 변론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그 변론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어린아이 한명을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이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오늘 키재기를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다면 그들은 먼저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부터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굶주리고 놀리며 삶의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기고 울고 있는 어린이들은 마땅히 주의 이름으로 영접되어야 합니다. 비진리로 오도되고, 불의 가운데 미혹되고 있는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으로 영접되어야 합니다.

**\*\*** 오늘도 누가 크냐고 키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즉시 주위의 가장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세는 곧 자기를 낮추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오늘 내 주위에 가장 어리고 낮은 형제들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영접하기 원합니다.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늘 은혜와 진리로 불드소서.

「그 가록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15 : 12)

본문에는 유다 지파 자손들이 제비뽑아 분배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미건조한 지명들의 나열 같지만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에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분배와 정착의 법칙은 '통일성숙의 다양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두지파로 분할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통일된 민족 공동체 안에서의 각지파로서 개성적이며 다양성 있는 조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이전에, 이 땅에는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혈통이 다른 독립국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기 그 지역적인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면서도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의 단일성과 민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된 조직의 특성은 활기찬 생명력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이 각기 특성을 살려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어떤 권위에 의해서 개성을 잃어버린 획일성에 사로 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개성이 억압되거나 통제되면 생명력이 위축됩니다. 독립과 자유, 통일과 다양성,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며 토지 분배의 법칙이며, 오늘의 교회가 지향해야할 원리입니다. 제비를 뽑아 분배한 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이와같은 계획하에서 진행되었고 각기 다른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각 지파는 불평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상황을 개척해 갑니다.

※※ 성도 혼자 힘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므로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통일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회의 일치를 위해 수고하게 하소서. 전도회 모든 지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구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15: 17)

우리는 제비뽑아 분배한 땅 중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지경과 성읍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의 가장 요충지이며 많은 소산물을 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에 유다의 번성과 주도적 역할을 예언했던 사실이 여기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갈렙이 자신의 분깃을 쟁취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빌’을 공격할 때는 그곳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결과 갈렙의 조카인 웃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게 됩니다. 웃니엘은 악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건 전투를 치뤄야 했습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승리한 웃니엘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게 된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악사’를 주겠다는 것은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보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웃니엘 처럼 우리 모두를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시며 맞아 주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이며(참조, 사62:5), 악전고투 끝에 쟁취한 성도의 승리는 웃니엘이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며 사랑과 용기의 보상을 얻은 것 처럼 값지고 귀한 면류관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작은 승리는 더 크고 소중한 일의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웃니엘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악사’를 아내로 얻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도 오늘의 작은 믿음의 승리가 내일의 더 크고 값진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협동목사님의 연구와 사역에 감절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15 : 63)

유다 지파의 분깃으로 돌아간 성읍들의 이름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는 본문에는 무려 137개나 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남방의 성읍, 평지의 성읍, 산악의 성읍, 광야의 성읍등 수 많은 지명이 나타나 얼른 보기에는 지루한 것 같아도 역사적 사실들을 엄밀히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의 사실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보다도 더욱 세밀하고 우선적인 것은 그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왕족인 다윗의 가계가 소속되어 있던 지파일뿐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탄생할 축복받은 지파이기에 당연히 다른 지파보다 먼저 언급되고 더 좋은 땅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받은 땅의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중심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반지파에게 돌아갔고 유다는 남쪽 지경으로 거칠고 메마르며 황폐한 곳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런 땅을 차지한 것은 야곱의 축복에 근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구원에 관한 계시입니다. 유다가 분배받은 땅은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생을 암시해 줍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137개의 성읍 가운데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또 거친 땅을 정복함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과 보혈의 댓가로 얻어질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유다 지파가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므로 여부스 거민들을 내쫓지 못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이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승리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분의 승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기도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사모하며 우리도 오늘을 승리케 하옵소서. 수요 다락방장 교육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10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끝내는 것도 엄연히 불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100 %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전 계명을 다 어긴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어느 한 계명을 어긴 것에 앞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함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거나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당한 말씀이며, 마음에 맞는 명령인가? 나에게 유익한 명령인가」를 계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자신의 마음에 합한 것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적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지만,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을 다 내어 쫓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땅마저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 \* 에브라임자손이 내어 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그들에게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우리의 삶에 걸림돌로 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 전반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18절)

하나님의 축복은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욕심을 내고 다투어도 얻지 못함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약4: 1-2). 요셉자손은 욕심을 내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온전히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욕심을 내어 땅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 많은 땅을 원하면 직접 가서 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한 그 산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음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병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믿음으로 싸우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자손이 산지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셉의 자손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바로 관리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명과 기업을 주십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순종하며 도전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뜻이며,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땅을 차지 못한 지파가 일곱 지파나 있었습니다(2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말을 직접 들어 봅시다.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3절) 그들은 참으로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대부분은 그들 앞에 패하였습니다. 남은 족속이 제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미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 ＊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하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큼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12 (주일) 모범적인 가정

찬송305 성경, 골3: 18-21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20절)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가정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가정 주관을 맞이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수칙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①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즉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② 다른 가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 더욱 복스런 가정이 됩니다.

③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새로워 집니다.

④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느 가정에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자녀는 부모님께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혹 그릇된 것을 말씀하실 때라도 공경하는 태도만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⑥ 자녀교육이 바르게 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 위의 원리가 바로 지켜지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모범적인 가정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됩시다.

기도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여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하소서.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4절)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 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서 3명씩 21명을 선출하여,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 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기업의 지형을 그려온대로 제비뽑아 각 지파에 알맞게 나눠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을 두루 다니며 답사를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지파에서 선발된 21명의 선발대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아무런 수고도 없이 차지하도록 비워 놓지는 않았습니다. 즉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승리와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 지난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까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의지할 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이러한 위험이 따르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과연 이 사람들 처럼 하나님을 믿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9절)

가나안 전 지역의 지형을 조사한 결과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영토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다 지파에게 이미 분배된 성읍 중에서 일부분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부탁을 수락하여 자신의 기업 중 일부를 양보함으로 관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오류와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겸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따르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하게 행한다 해도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차지한 땅이 모든 지파 보다 많음을 인정하고 다른 지파의 부족한 처지를 돌아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공로를 따지면 유다 지파가 특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 전체가 공평하게 나눠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정했으며, 기꺼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였습니다.

※ 유다 지파의 솔직한 양보는 시므온이 유다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창49:7). 또한 유다 지파가 곤경에 처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유다를 도와 가나안 족속을 치게 됩니다. 유다의 선행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후일에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17절)

본문은 각 지파들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위치를 정하였습니다(9절). 각 지파의 서열이나 공로를 따라 위치와 넓이를 정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 위치를 정하였으며, 그 지파의 숫자에 따라 넓이와 한계를 할당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민 26:54-56). 하나님 앞에서 제비로 결정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16:33).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에 다 순복하였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토지 공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하시면서 매매한 땅도 회년(50년)이 되면 원 소유주에게 돌려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부동산 투기꾼을 무섭게 저주하고 있습니다(사5:8-10, 미2:2-5).

**\*\* 그리스도인은 경제 원리도 성경 위에 세워야 합니다.** 땅은 결코 재산 증식과 착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성도는 멸망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와 명령대로」(50절)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진 후에야 산악 지대의 땅을 자신의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청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몇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맨 처음으로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수14: 6-15).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맨 끝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것은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1절의 땅의 분배가 다 끝났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은 가장 큰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가장 작은 상급이었습니다. 그것은 덤낫세라는 알려지지 않은 불모의 땅이요, 땀과 노동을 요구하는 미개척지였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땅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진정한 상급의 진가는 그 외부적인 가치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받을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 믿음으로 바쳤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정한 상급은 아무도 뺏지 못하는 하늘 나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수20 : 9)

도피성 제도는 참으로 놀라운 제도입니다. 부지중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한 이 각별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인애로우신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지중 오살한 자는 고의적 살인자와는 다르고 또 달리 취급해야 함이 공의입니다. 또 이같이 과실치사케 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인애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하여 이같은 배려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실로 크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읍이 너무 멀거나 찾기 어려우면 실효가 없을 것이기에 요단강 양편 세 성읍씩 여섯 성이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오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운영지침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도피성은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뜻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유일한 피난처 도피성은 그리스도 이십니다. 이 도피성에 나아올수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 \* 생각지 못했던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는 엄청난 결과에 두려워 떠는 살인자는 피의 보수자의 손을 피하여 절박한 달음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에 도달하기까지는 결코 마음놓지 못했고, 사는 유일한 이길을 전력으로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 살인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도피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와 죽을 죄짐 벗고 모든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을 따라...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수21:3)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케 하셨습니다(신10:8). 그러므로 레위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분깃이 없었고 가나안땅의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사람의 생활대책이 필요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돌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할 성읍과 들을 주도록 이미 명령하셨던 것입니다(민35:1-8). 각 지파별 땅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기업 중에서 성읍과 그 들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양받으며 살게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직 혹은 복음사역직분은 세상 일과 겹쳐도 좋을만큼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며, 세속 업무에 밀려 뒷전에 물러나도 괜찮을 정도의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업수이 여김을 받을 때는 바로 어둠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 복음사역에 전무하고 세상에 아무 분깃을 가지지 못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껏 도와야 합니다. 국내외 목회자들과 선교사 기타 복음사역자들의 사역을 마음껏 지원하고 저들이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치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부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요삼1:8).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2 : 4)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것은 바로 본문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삼대절기중 하나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직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만 전심하고 있던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능력의 사람이 되어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여 졌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성령강림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그 이전부터 성령은 존재하시고 역사하셨으나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서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 가신것은 바로 오순절 이때부터 였습니다.

※※ 성령께서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셨는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와 그 사역을 주장하신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충만으로 새시대가 열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성령충만으로 새역사가 전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수21 : 8)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레위사람들의 임무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방으로 분산된 이스라엘 지파를 돌보기 위하여 레위인들도 흩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유다 베냐민 시므온 지파의 땅에 배정되는 등 그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레위인들이 가나안땅 전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및 사회생활을 지도하고 교육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지파끼리 사는 것은 편하고 거리낄것이 없으나 타지파 속에 남다른 신분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 \* 그리스도께서 열두제자를 한 무리로 양육하셨으나 때가 되니 모든 족속 가운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크게 부흥하여 큰 무리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를 큰 핍박으로 사방에 흩기도 하셨습니다 (행8: 1) 교회와 성도는 편안한 데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봉사케 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사명을 찾아 자신의 능력과 기회가 닿는대로 최선의 봉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혹시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는 맛없는 소금, 불꺼진 등이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수21 : 45)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 것이 첫째 증거입니다. 또한 그 땅에서 안식을 주셨으며,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시며 약속하신 것들이었는데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창13:15, 15:18). 물론 가나안 족속이 전부 멸망당하고 쫓겨나간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가나안인이 남아있어서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음과 순종으로 시종일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뒤로 물러갔으며 하나님명령에 단호히 복종치 않고 불순종으로 주춤거렸습니다. 저들은 믿은 만큼 받아누렸으며 순종으로 전진하여 밟은 땅은 다 저희 것이 되었습니다.

※※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므로 신실하실 수 밖에 없으십니다. 그의 말씀이 신실하고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앞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는 믿음과 깊은 신뢰 그리고 순종입니다.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신앙과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선한 일이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염려, 두려움, 실망을 극복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의 충천올림픽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믿음과 사랑의 교제 중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소서.

## 22 (수) 동고동락(同苦同樂)

찬송525 성경, 수22 : 1-9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수22 : 3)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땅 분배도 완료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군사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때는 요단 동편 기업을 얻으면서 자기네들은 더이상 싸움에 참여치 않고 그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기도 했었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동족들과 같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가할 뿐 아니라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저들이 지도자의 명령을 다 지키고 오랜 기간동안 동족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임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 격려하였습니다. 두지파반이 형제 지파가 안식을 누리리기까지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요단을 건너 생명을 내놓고 같이 싸운 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곧고 한 때에 그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는 형제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지체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 사도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딤후2:3).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군사된 동료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나만 편히 지내면서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합니다. 형제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사랑을 바로 아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애를 통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여호와를 좇는데서 떠나서」(수22 : 16)

귀환하던 두지파 반이 요단강 가에 큰 단을 쌓은 일은 뜻밖의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있는 엄중한 규례(신5:5-26)를 잘 알고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 소식을 듣고 펄쩍뛰면서 당장이라도 징벌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만일 두지파 반의 의도가 불순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일이었다면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하기 위한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비록 저들이 한 피 나눈 동족이요 출애굽이후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던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원수취급하여 싸우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거룩한 경배를 위한 놀라운 열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에 성급한 공격으로 임하지 않고 비느하스를 위시한 대표단을 선정하여 자세히 묻고 살펴보고 시비곡직을 가리고 적절한 대책까지 제시한 것은 너무도 잘한 처사였습니다.

※※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예배를 지키려는 열심은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갖가지 이단사설과 우상과 미신적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복음진리를 파수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는 거룩한 열심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혼합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등도 간교한 모습으로 교회를 헐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심으로 힘있게 일해야 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수22 : 22)

동족의 불같은 추궁을 받고 해명을 하는 두지파 반은 저들의 본심을 이해 시키느라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었노라고 고백하며 거짓없는 진심을 밝혔습니다. 여호와와 성막이 있고 동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 요단을 건너면서 두지파 반은 동족들에게 소외당하고 신앙의 대열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강건너 사람이 되어 거리도 멀고 왕래와 교제도 뜸하게 되면 따돌림 받는 것이 아닐까, 강건너 너희가 우리 신앙유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배척당하지나 않겠는가'하며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단 모형을 만들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종교와 동일한 신앙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두지파 반의 행동이 최선의 행위는 아니었을지라도 일단 저들의 입장은 이해되었고 오해는 풀려 서로 화목케 되었습니다.

＊ ＊ 어느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도 환경이 달라지고 곤고한 일을 만나면 별수없이 약점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연약할 때 유치한 행동을 하기도 하며 불필요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세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기 본위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본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형제의 유익을 도모하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복음에 합한 삶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23 : 5)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를 위대한 군인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 사랑의 관심을 가진 위대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과 백성을 충성스럽게 섬겨왔습니다. 이제 그는 백성이 주님을 떠나 유업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는 죽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을 확인해 봅시다. 첫째로, 과거를 살펴봅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3절)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은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4절). 둘째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니 모든 땅들이 다 차지될 것이다(5절)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지역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13:6, 출23:23)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심을 깨닫고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엡 6:11). 또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약속받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참조, 빌1:27, 히12:4).**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케 하소서.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 26 (주일)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찬송356 성경, 수23 : 6-10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23 : 8)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친근히 하다’는 말은 ‘착달라붙다’ 또는 ‘힘써 쫓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충실하게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하며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또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여야 합니다(6절). “크게 힘써”라는 말은 ‘매우 용기를 다해’, 또는 ‘단단히 결심하고’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할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친근히 하며 그 길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 20세기의 말을 사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비겁자가 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하신 주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친근히 함으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딤후6:19).

「여호와께서...말씀하신...일이...임한 것같이」(23 : 15)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몇가지를 점검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11절).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외부의 적보다 그들의 속 마음을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참조, 약1:15).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 끝까지 여호와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에 휩쓸려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삼가 불의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선한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악한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모두 이루시되 멸절시키기까지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가깝게 지낼 때 결국 이들은 이방 민족으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됩니다(13절). 이러한 사실이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에 현실로 나타나(삿2:3)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요일 5:21). 또한 우리는 처음부터 올바르지 못한 일이나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마19:17).

## 28 (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찬송404 성경, 수24 : 1-13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24 : 1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특별한 일들을 보통 우연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첫째로, 역사 속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4절).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 사람은 각각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이들은 각각 다른 재능과 다양한 능력을 갖고 태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큰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간섭하시며, 당신의 의지를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치셨으며, 아모리 두 왕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왕벌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벌은 종종 공포와 원수로 상징 됩니다(신 1:44, 시118:12).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24 : 15)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 항상 있는 일이며 본문 말씀 역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가 세상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또 지금 이 시간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진실한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15절). 이와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의 전부입니다. 둘째로 사람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 합니다. 셋째로,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호수아의 단호한 신앙의 결단으로 인하여 우상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네째로, 이러한 선택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호소하기를 스스로 결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본질상 죄악으로 돌아가기를 잘하는 인생이기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결단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점점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주님! 저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일본의 유병세 선교사님과 보츠와나의 전미령 선교사님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니」(24 : 19)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첫발을 내딛고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자주 이탈하고 지키기를 즐겨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종의 꾸짖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결단한 후에도 죄악으로 돌아가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 뒤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약 2:15-17).

- \* \*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과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일백 십 세에 죽으며」(24 : 29)

본문에서는 세 사람의 죽음과 그에 따른 세 곳의 매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그가 소유지로 물려받은 덤밭 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조상들과 같이 본토에 옮겨달라고 유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천국은 변치않는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도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31절). 그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본받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 \* 인생이란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안과 그 밖으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아침, 영원한 새벽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 가정예배 안내

## 예배 순서

---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